



##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CDP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씨를 뿌립니다. Child Development Project in Mongolia

2014년 7월 ~ 12월 소식입니다.

2015년 새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또한 아쉬움도 있음은 매년 반복되는군요. 하지만 2015년, 새해는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 올 한해 더 나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해,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듯이 몽골 현지인 직원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했던 고백을 그들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CDP(어린이개발프로그램)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전에도 갖고 있었던 마음이지만 올 해는 그 마음에서 좀 더 발전된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들경오양가 이야기



CDP 아동중 한 여자아이의 배변장애 치료를 위해 아동과 아동의 법적 권리인인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을 다녀왔었습니다. 7월은 여름캠프 때문에 준비가 한창인 시기라 아동치료 후 바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 엄마의 재혼으로 고아원 생활을 해야 했던 이 아이는 쾌활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배변에 장애가 생겼고, 항문과 연결된 직장이 커져서 변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변조절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치료하는 내내 미안함으로 정성껏 딸을 챙겼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장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 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뭐 어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비록 아픈 과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 그리고 엄마와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검색, 몽골소녀 들경)

### ● 아버지의 날 행사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날라흐지역 119번 학교와 더불어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준비나, 모인 인원수나 진행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고, 그 역할의 의미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나, 구청에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독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

자고 평가를 했습니다.



### ● 여름캠프



캠프를 준비, 교사교육



캠프장, 교사소개



장소가 늘 서지연수양관입니다. 바꾸자고 했지만 결국에 선택하게 된 곳이 여기입니다.



### ● 신학기지원, 교복지원, CDP교실 확대, 석탄지원



몽골은 9월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년에 학업을 위해 학용품을 지원함.



비타민지원



석탄지원



교복지원



체육대회



상담실겸 공부방 오픈



방과후수업

● 크리스마스 카드만들기, 크리스마스 행사

이제는 제법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적응이 되었나 봅니다. 처음에 카드를 만들 때만해도 크레파스에 그려져 있는 로봇이나 만화 캐릭터를 그리기 일수였는데, 이젠 제법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CDP 졸업한 아동이 행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경오양가 엄마가 감사 선물을



우수아동 시상



크리스마스 축하공연

● CDP 소식지 2호 발간

CDP 소식지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창간호가 만들어졌을 때, 2호지를 올려 만들 것을 계획하기에 과연? 혹시?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번엔 지난번처럼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 내다니 참 기특합니다.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했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려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 내용도 많이 세련되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표지 모델도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찍기로 했는데, 발탁된 아이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CDP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니 그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아직은 그 자부심에 훨씬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역할도 배우게 되겠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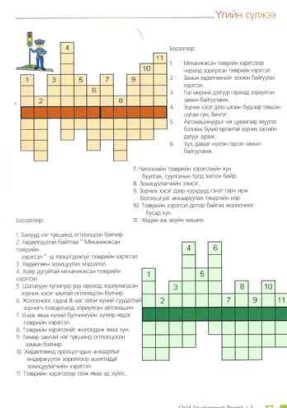
표지



가족을 인터뷰하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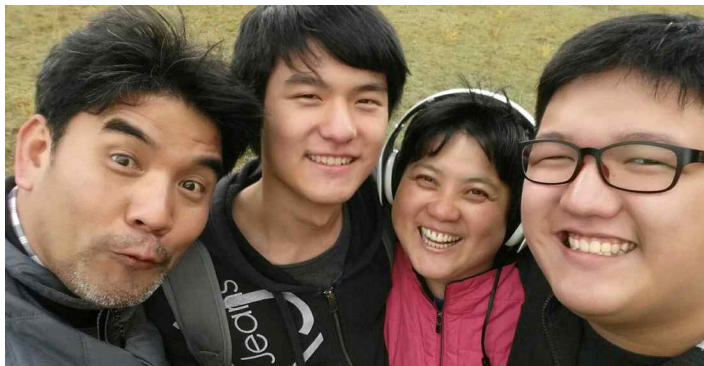


건강정보



퀴즈

● 가족이야기 : 우리 가족이야기는 또 영찬이 이야기로 시작될 수밖에 없군요.



^^ 영찬이가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러시아의 톰스크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에 그렇게 될 줄 알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초청장이 안와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결국에는 10월 20일께 되어서야 초청장이 나와서 11월 1일에 첫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행정의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다와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도시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도시가 온통 하얀색이더군요. 눈 내리는 날이 안 내리는 날보다 훨씬 많답니다. 오죽하면 체육수업이 스키를 타고 하는 크로스컨츄리 일 정도랍니다. 예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스카이프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훈이는 자기도 형을 따라 톰스크로 가야 한다는 부담?? 기대?? 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스스로 점검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되새기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참 자격 없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음 그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몽골에서 김준태, 천선희(영찬, 영훈) 선교사 올림.

연락처 : 몽골 976-9944-8115 , 976-9100-8115  
070-4642-8117  
peter66@hanmail.net

후원계좌 : 660401-01-179920 국민은행 김 준 태